유달산-고하도 해상케이블카 재추진

목포시 "국내 첫 해상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충분"

환경단체선 "자연경관 훼손·파괴 행위" 강력 반발

유달산과 고하도를 잇는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또 다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1998년에 추진하려다 중단했던 유달산~고하도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19일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목포시는 유달산~고하도간 케이블카가 국내 최초로 내륙과 해상을 연결하게 돼 관광객 유치 등 사업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유달산~고하도 케이블카는 유달산 유선각과 마당바위 중간 해발 170~180m의 8부 능선을 종점으로 기점은 고하도 해발 78m 지점에 설치된다.

길이는 육상 791m, 해상 1천102m 등 1천893m에 높이 60m로 1개의 지주대가 설치되고 약 1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는 환경부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고 식물과 동물생태, 지형지질, 경관 문화재 등의 환경성 조사를 면밀히 검토해 자연환경 및 경관 훼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목포지역 환경단체는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는 파괴행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해상케이블카는 이미 1998년에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중단된 정책"이라며 "목포시가 포기한 사업을 다시 추진해 예산을 낭비하고, 소모적인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목포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케이블카 건설을 찬성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목포대 최동오 교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 64.4%, 잘 모르겠다를 포함해 반대 35.6%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환경성 검토와 시민공청회 등 다각적인 검토·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깊은 잠에서 깨어난 천년의 '비색'

목포 해양유물전시관 특별전

태안 보물선 인양 유물 전시

목포에 있는 문화재청 국립해양유물전시관(관장 성낙준)에서 23일 '고려청자 보물선-강진, 태안, 그리고' 특별전이 개막됐다.

오는 8월3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주꾸미가 감싸 안은 고려청자 등 태안 보물선에서 출토된 유물 2만3천여점 가운데 1천여점이 선보이고 있다.

전시기간 동안 두꺼비 모양 벼루 〈사진〉를 이용한 목간쓰기, 태안청자 문양 그리기, 주꾸미 체험 포토존 등 어린이들을 위한 체험행사도 함께 마련된다.

8월9일부터 9월21일까지는 고려청자의 본거지 강진에서 순회전시가 열린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목포시 정원 53명 감축

1과 4담당 폐지 조직개편 단행

목포시가 정원 50여명을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목포시는 조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1과 4담당을 없애고 정원의 4.7%인 53명을 감축한다.

이번 조직개편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연간 23억 원의 인건비를 절약하게 됐다.

주요 개편 내용을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의 신도심관리과가 신도심건설과로 흡수 통합되고 재정 운영의 기능 강화를 위해 기획혁신과를 기획예산과로 변경한다.

또 서남권종합발전계획 및 균형발전 업무 전담을 위해 기획예산과에 지역발전 기능을 신설하고 관광투자유치 기능을 투자통상과로 이관했다. 이밖에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관광기획과에 관광상품개발 기능을 신설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다음 달 목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정기 인사 때부터 반영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진도군, 해군 3함대에 홍보용 진돗개 기증

진도군이 지역 군부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진돗개 우수성 홍보를 위해 지난 20일 해군 제 3함대사령부(사령관 구옥희)에 진도개를 전달했다.

한편 진돗개 명견화 사업은 지식경제부 지역 연고 진흥사업으로 선정돼 3년간 5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다양한 명견화 사업이 추진된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상·하조도 '최고의 휴양섬 베스트 30' 선정

진도군 조도면 상·하조도가 행정안전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 '2008 휴양하기 좋은 섬 베스트 30'에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도서 경관과 쾌적성, 볼거리, 숙박시설 등 현장 확인을 통해 휴양하기 좋은 섬 30곳을 뽑았다. 상·하조도는 아름다운 절경과 바다 낚시터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진도=박현영기자 hypark@

목포 시내 경관등 월요일엔 끈다

고유가 대비 에너지 대책

'빛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는 목포시가 고유가에 대비해 효율적인 고강도 에너지 대책을 마련했다.

목포시는 에너지 절약 1단계 조치로 매주 월요일을 '경관조명 소등의 날'로 지정, 시내 경관 조명을 모두 소등한다.

'빛의 거리' 등 야간 경관조명은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에는 일몰 시간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주말에는 일몰부터 11시 30분까지로 각각 1시간 단축 운영된다.

또 영산강 하구언 도로 앞에 설치된 '만남의 폭포'는 주간 가동을 중지하고 야간에만 운영하며 37개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도 격등제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많은 지역과 골목길 보안등은 격등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동부취재본부	(061)908-8111	목 포	(061)276-9200	나주시	(061)332-5544
여 수	(061)653-8444	강 진	(061)434-6830	나주군	(061)332-7764
광 양	(061)792-8111	무 안	(061)452-8535	담 양	(061)383-8111
순 천	(061)746-8111	신 안	(061)243-3758	영 암	(061)473-2340
고 흥	(061)842-2121	완 도	(061)554-6677	장 성	(061)392-2100
구 례	(061)783-8111	영 광	(061)351-0055	장 흥	(061)863-8822
곡 성	(061)362-8111	진 도	(061)543-0100	화 순	(061)374-4423
보 성	(061)853-9700	함 평	(061)324-8111	광 산	(062)944-0444
		해 남	(061)534-5151		